

“벼 출수기 전후병해충방제 철저”

군산시, 이삭도열병·잎집무늬마름병 주의해야

군산시는 10일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최근 추이로 살펴보면 전년도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,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,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.

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,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.

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 발

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한 논은 출수 전 5~10일전로 방제해야 발생률을 경감시킬 수 있다.

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흑명나방,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. 2화기 종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잎이 1~2개정도 보일 경우 등록약제로 사전 방제해야 한다.

채행석 소장은 “출수 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~30%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”며 “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/박상만 기자

2021년 08월 11일 수요일
007면 자치시대

군산시 ‘벼 출수기 병해충 종합방제 철저’ 당부

군산시는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,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하면서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,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.

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.

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한 논은 출수전 5~10일전으로 방제해야 발생률을 경감시킬 수 있다.

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흑명나방·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.

채행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출수 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~30%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”며 “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군산=이환규 기자

전라매일

2021년 08월 11일 수요일 012면 지역

벼 출수기 전후 방제 철저 당부

군산시, 병해충 확산방지

폭염 장기화 물관리 철저

군산시는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최근 추이로 살펴보면 전년도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,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,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.

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.

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

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 발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한 논은 출수전 5~10일전로 방제해야 발생률을 경감시킬 수 있다.

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흑명나방,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. 2화기 종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잎이 1~2개정도 보일 경우 등록약제로 사전 방제해야 한다.

채행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출수 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~30%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”며 “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/박수현 기자

전북도민일보

2021년 08월 11일 수요일
006면 지역

군산농기센터, 벼 출수기 병해충 확산방지 진력

군산시농업기술센터(소장 채행석)가 본격적인 벼 출수기를 앞두고 폭염 장기화와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.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 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을 비롯해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포착됐다. 특히 방제에 소홀하면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 저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.

따라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.

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 발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한 논은 출수 5~10일 전 방제해야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. 군산=정준모 기자

군산시, 농작물 병해충 피해예방 당부

군산시는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10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추이로 살펴보면 전년도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, 2모작 논

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. 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.

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 발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된 논은 출수전 5~10일전로 방제해야 발생율을 경감시킬 수 있다.

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흑명나방,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. 2화기 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율이 1~2개정도 보일 경우 등록약제로 사전 방제해야 한다.

채행석 소장은 "출수 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~30% 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"며 "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 주길 당부드린다"고 말했다. /군산=허정찬 기자

새만금일보

2021년 08월 11일 수요일
007면 지역

군산시,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

군산시가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최근 추이로 살펴보면 전년도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,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.

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.

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 발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된 논은 출수전 5일~10일전로 방제해야 발생율을 경감시킬 수 있다.

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흑명나방,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.

2화기 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율이 1개~2개정도 보일 경우 등록약제로 사전 방제해야 한다.

/순정일 기자

전주매일

2021년 08월 11일 수요일 007면 지역

군산시, 벼 출수기 전후 '병해충 종합방제 철저' 당부

군산시는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최근 추이로 살펴보면 전년도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,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. 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.

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

아 발병 포기율이 20% 정도 발생된 논은 출수전 5~10일전로 방제해야 발생율을 경감시킬 수 있다.

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흑명나방,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. 2화기 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율이 1~2개정도 보일 경우 등록약제로 사전 방제해야 한다.

채행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"출수 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~30% 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"며 "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린다"고 말했다. /군산=한경봉 기자